



Maison 30 ANNIVERSARY marie claire

2024 NOVEMBER
WWW.MAISONKOREA.COM

30

ANNIVERSARY

marie claire

COVER STORY

밝은 톤으로 균형을 이뤄낸 집

STYLES

새로운 패브릭과 벽지

INSPIRATION

풍요로운 가을 정원

SPECIAL

집, 예술의 무대가 되다

TREND

세계적인 컬러 연구소가 추천하는 2025년 올해의 컬러

가구. 가전. 주방. 욕실 등의 둘자가 뿐은 올해의 브랜드

BEST BRAND 2024

정가 9,000원



November Contents

- 18 **EDITOR'S LETTER**
22 **UP-TO-DATE**
36 **SHOPPING**
FROM THE NATURE
38 **SHOPPING**
SHAPE OF ARMCHAIRS
40 **ART**
경기 침체 속에서 빛나는 예술의 도시들
42 **GLOBAL/PARIS**
TAKE OF PARIS
44 **GLOBAL/NEW YORK**
EMOTIONAL WELLBEING
46 **HARMONY OF INTERIORS**
밝은 톤으로 리듬감을 부여한 피에르의 아파트
58 **WITH GOOD MOTIF**
슈마커의 미국 셀러 대표인 베니프로빈의 런던 아파트
68 **몰타에서 72시간**
인테리어 디자이너 프란시스 솔타나와 함께한 몰타 여행



Harmony of Interiors

피에르와 마리 부부, 그리고 그들의 세 아이가 사는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실내건축가 사라 드레이이는 대칭을 이루는 선을 이용해 리듬감을 주고, 멋진 가구와 작품을 배치해 포인트를 주었다.

STYLIST 이안 필립스 Ian Phillips PHOTOGRAPHER 스테판 줄리어드 Stephan Julliard





“데 세데 De Sede의 카나페 ‘DS600’은 이 아파트에서 가장 먼저 자리를 찾은 가구예요.”
(왼쪽부터) 석회암으로 만든 낮은 테이블 트리오(베이주 아브뉴 Beige Avenue)에는 앙투아네트
파라갈라 Antoinette Faragallah의 세라믹(차양 갤러리 Chahan Gallery), 산드라 지니 Sandra
Zenni의 세라믹(1831 아트 갤러리 1831 Art Gallery), 그리고 오렐리앙 장드라 Aurelien
Gendras 갤러리의 세라믹을 놓았다. 암체어는 올리비에 산티니 Olivier Santini 디자인, 모조우
Mojow. 태피스트리와 팬던트 조명은 사라 드레이 디자인. 벽난로 위에는 자이알 오데드라
Jaimal Odedra의 금빛 브론즈 꽃병(갈르리 파트릭 푸르탱 Galerie Patrick Fourtin)을 놓았다.
장-피에르 보나르도 Jean-Pierre Bonardot의 조각품 두 점(오렐리앙 장드라 갤러리)이 원쪽
책장을 장식한다. 책장은 사라 드레이가 맞춤 제작.



“저

음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바로 결정했어요!” 마리가 웃으며 말한다. “피에르는 저를 믿고 맡겨 함께 집을 보러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날 아침에는 제가 같이 가자고 설득했어요.” 그런데 이 집은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다. 이전 주인이 93년간이나 살던 집이라 모든 것이 낡았다. “곳곳에 물 피해 흔적이 있었고, 화장실은 터키식이고 현관은 쓸데 없이 넓직한 반면 주방은 작았어요.” 실내건축가 사라 드레이가 회상한다. 그렇지만 집 크기와 오스만 스타일은 피에르와 마리가 원하던 바였다. 그리고 세 아이가 다니는 학교와 아주 가까웠다. 사라는 집을 재구성했는데, 창은 많이 만들고 문은 적게 만들었다. “열

린 공간을 좋아해요. 그러면 공간이 숨쉬거든요.” 그가 늘 신경 쓰는 또 다른 요소는 ‘균형’이다. 현관 돌 바닥의 엄격한 바둑판 무늬와 응접실 패널의 규칙적인 리듬, 또는 부부 육실의 육조 곡선과 조화를 이루는 벽감에서 균형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거실의 큰 카나페처럼 멋진 가구들이 지루함을 덜어준다. 피에르와 마리는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아주 뉴트럴한 색을 원해, 사라 가구를 포함해 집 안에 파스텔 같은 톤을 사용했다. “컬러감 있는 소품들과 공들여 만든 소재를 즐겨 사용했어요.” 사라는 소품에 대해 세로 흄을 판 나무 조각품처럼 좋은 소재는 ‘모든 차이를 만든다’고 말했다. **m**

카나페 'DS600'(데 세데)와 낮은 테이블
트리오(베이주 아브뉴), 그리고 사라
드레이가 디자인한 펜던트 조명으로
곡선을 담은 거실. 벽에 걸 그림은
지안카를로 카포리치 Giancarlo
Caporicci 작품. 벽등 '실랭드르
Cylindre'는 사라 드레이 디자인.



거실과 연결된ダイニングルーム에는 편안한 흰색을 사용했다. 의자 '0414'는 갈로티&라디체 Gallotti&Radice. 테이블은 대리석 상판으로 맞춤 제작했다. 왼쪽의 크롬 북 스탠드는 사라 드레이 디자인. 줄무늬 유리와 브론즈 메탈로 된 벽등은 전 주인이 놓고 간 것.





“천장에 빛 비를 만들었어요.” 천장등은 백대리석과 활동으로 맞춤 제작했다. 콘솔(AMPM)과 마틴&도울링 Martin&Dowling의
떡갈나무 조각 오브제는 무부망 모데른 갤러리. 그림은 갈르리 뒤크o Galerie Dutko.



“세로줄을 많이 사용했어요. 고급스런 느낌을 주거든요.” 에르베 랑글래 Herve Langlais의 대리석 콘솔 ‘아르슈 2 Arches 2’와
줄리앙 세돌랭 Julien Cedolin의 세라믹 꽃병 ‘필리에 1 Pilier 1’은 모두 갈르리 센 우베르트 Galerie Scene Ouverte.

엠마뉘엘 시몽 Emmanuelle Simon의 가죽 벤치가 맞춤 제작한 아일랜드와 잘 어울린다. 석회암 테이블은 베이주 아브뉴. 빈티지 사암 불은 갤러리 KRD. 의자 '바바 Baba'는 엠마뉘엘 시몽. 백대리석 상들리에는 맞춤 제작. 제랄딘 피노 Geraldine Pinault의 석영암 조리대 위에는 세라믹 그릇을 올려놓았다. 선반에는 유리잔과 볼(CFOC), 갈르리 바그너 Galerie Wagner의 작품들을 놓았다.



데다르 Dedar의 패브릭을 감싸 만든 침대 헤드보드는 편안함을 주는 곡선으로 디자인했다. 침대 헤드보드와 백대리석 펜던트 조명, 대리석 사이드 테이블은 모두 사라 드레이 디자인. 리넨 침구는 리소이 Lissoy. 조명 '녹타_03 Nocta_03'은 드니 카스탱 Denis Castaing 디자인(오렐리앙 장드라 갤러리).





세 아이의 침실에는 각각 오픈된 욕실을 만들었다. 큰딸 침실의 욕실에는 떡갈나무와 화강암으로 된 세면대와 물결 모양의 떡갈나무 프레임의 거울을 놓았다. 모두 맞춤 제작.



부부 욕실에서 주인은
석회암으로 핑크색 오닉스와
조합했다. 수전은 게시
Gessi. 타부레 '시그니처
오브젝트 6' Signature
Object 6'는 다니엘 베를링
Daniel Berlin 디자인(마리아
베테르그렌 갤러리 Maria
Wettergren Gallery).

etc.

EDITOR 샤를로트 바이유 Charlotte Bailly

석회암으로 된 낮은 테이블 '에픽 Epic'.
감프라테시 GamFratesi 디자인. 구비 Gubi.
지름 60×높이 42cm. 1999유로.



페인트 '베르트 Berthe'.
메르카디에 Mercadier.
1L에 54.60유로.

목직한 떡갈나무 의자 '바바'.
시트와 등받이는 패브릭.
엠마뉘엘 시몽, 디 인비저블
컬렉션 The Invisible
Collection에서 판매.
가로 46×깊이 61×높이 89cm.
3960유로.



식물로 염색한 면 패치워크 쿠션 커버 '아레 Arez'.
마두라 Madura. 50×50cm. 40유로.

포슬린 꽃병 '잘리나
Zalina'. 볼체 Boltze,
파브리크 드 스틀 Fabrique
de Styles에서 판매.
지름 10×높이 9cm.
6.95유로.



패브릭 카나페 '언포게터블
Unforgettable'. 수공예 제작.
다미昂 랑글로와-뫼린
Damien Langlois-Meurinne,
디 인비저블 컬렉션에서 판매.
가로 400×깊이 200×높이 77.5cm.
1만9610유로부터.



페인트 '네스트 Nest'.
메르카디에. 1L에 54.60유로.

페인트 '동 에투왈 Mon Etoile'.
메르카디에. 1L에 54.60유로.



폴리마이드 태피스트리 '노르워크
Norwalk'. 웨스트윙 Westwing.
지름 160cm. 139유로.